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747번길 16
www.silhakmuseum.or.kr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청소년용 참실학교실 활동지

실학(實學) : 17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조선 후기 사회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사상으로 당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성리학의 관념성과 경직성을 비판하며 경제치용과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학문 태도를 강조했다.

표파서 속 \wedge

표파서 밖



실학박물관



1 실학의 형성

조선후기 사회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정치는 문란하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처럼 사회는 극심한 변동과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당시 조선의 학문이었던 성리학은 이론만 치중하여 실제 생산과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전개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로는 토지에 부과하는 전세(田稅), 지역 산물을 납부하는 공납(貢納), 노동력을 제공하는 요역(徭役) 등이 있었습니다. 일반 성인 남자는 병역에도 종사했는데 이를 군역(軍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이 더욱 커지자 국가에서는 지역특산 현물 대신 쌀로 내게 하고 [대동법], 군역 대신 내던 베를 반으로 줄여주기도 했습니다[균역법]. 나라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공인(貢人)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농업생산과 상공업이 활발해지고, 상품화폐경제가 차츰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Think!

조선후기 화폐의 활발한 유통이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김육

서양문물의 전래

14~16세기 서양에서의 나침반 발명과 항해술의 발달은 신대륙 발견과 영토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16~17세기 서양의 문물을 접한 청나라에는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으로도 서양 책과 지도, 지구 등의 등이 전래되었는데, 이는 조선인의 사고와 세계인식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hink!

나침반과 세계지도의 전래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실학의 형성

실학은 조선 내부의 현실문제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지, 그리고 서양문물을 통한 과학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혁적, 현실적, 생산적 사상과 학술로서 문명지향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Think!

'실학'이 오늘날 갖는 의미는 무엇 일까요?

청·일과의 교류

실학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청(淸)에는 연행사라는 사신을 보냈는데, '청의 수도 연경으로 여행한다'고 해서 불인 이름입니다. 연행사는 청에서 서양문물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서적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이후 '민음을 회복[통(通)하자'란 뜻의 통신사란 이름으로 일본에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2 실학의 전개

실학의 학파 - '경세치용파' [중농학파]

실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처지와 문제의식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이들이 가진 생각을 경세치용파, 이용후생파, 실사구시파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세치용파'는 농업과 제도개혁, 유교정전(고전)의 재해석과 국학연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일종의 '중농학파'라 할 수 있습니다. 경세치용파의 대표적인 실학자는 이익과 안정복,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익



성호집

이익의 학문과 사상을 살필 수 있는 문집

Think!

이익이 여러 지식과 정보를 모아 엮은 책으로,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시문문(詩文門)으로 나누어 놓은 일종의 백과사전류로서 그 견문이 넓고 고증이 명확하다고 평가받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안정복



순암집
안정복의 문집

Think!

안정복이 쓴 역사책으로, 단군조선을 시작으로 고려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단군조선을 우리역사의 출발로 본 점, 삼한정통론에 입각하여 삼국의 역사체계를 세운 점, 강역을 바로잡고 철저한 고증으로 역사서술의 수준을 높인 점 등에서 조선후기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실학자 '정약용' 알아보기



영조 28년 경기도 남양주시 마재(또는 마현)에서 태어났다. 성균관 학생을 거쳐 과거에 합격한 정약용은 규장각에서 학문적 재능을 쌓았으며, 과학적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여 한강에 배다리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화성을 축조할 때에는 거중기를 만들고 실용화하여 백성들의 노고와 희생을 덜어 주었고,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두었다. 한편, 경기도암행어사로 임명되어 농촌의 비참한 생활을 직접 보게 된 그는, 탐관오리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철저히 폭로하였다.

정조가 승하하고 이어 일어난 천주교 박해사건(신유박해)으로 정약용도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다. 그로부터 무려 18년 동안 그는 장기와 강진의 유배지에서 보냈다. 유배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세월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계기로 삼았다. 토지의 불균등한 소유를 비판하고,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그리고 균등 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주장함으로써 유교적 이상국가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종래의 유학에 대한 전면적인 고증과 새로운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자주적인 실학사상을 전개하였으며, 5백 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Think!

정약용의 활동을 적어보세요.

개혁사상가로서의 정약용

.....

.....

.....

.....

.....

.....

.....

.....

목민관으로서의 정약용

.....

.....

.....

.....

.....

.....

.....

.....

과학자로서의 정약용

문인으로서의 정약용

정약용이 생각하는 목민관과 백성의 관계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 옛날에는 백성만 있었을 뿐 목민관은 없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다가 해결을 보지 못한 것을 공정한 말을 잘하는 어른이 이를 해결하자 사람들이 모두 감사하며 그를 추대하여 이정(里政: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하였다. 또한 여러 마을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서 해결 못한 다툼거리를 지혜가 높은 어른이 해결하자 그를 추대하여 당정(黨政: 500호 정도의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 황왕(皇王: 황제)의 근본은 이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목민관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수령은 옛날의 제후와 같은 지위인데, 그들의 의식주 생활은 국군과 비슷하며 권한도 매우 크다. 그리하여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지만, 그것이 어디 이치에 닿기나 하는가? 목민관은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전시실에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찾아 이 책들의 내용을 적고, 이 책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 적어보세요.



목민심서



경세유표

.....

.....

.....

.....

.....

.....

.....

.....

.....

실학의 학파 - '이용후생파' [중상학파]

'이용후생파'는 다른 나라, 특히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상공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북학파'로 부르며 '중상학파'라고도 합니다. 중상학파에 속하는 실학자로는 주로 서울의 도시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을 한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습니다. 당시 지배층은 절약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박제가는 오히려 상업을 일으키고 재화를 많이 써야 생산이 늘고 빈곤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연암집
박지원이 쓴 소설과 일기를 포함한 시문집

박제가



북학의
경제 개혁안을 제시한 책



연암 박지원이 1780년에 청나라에 다녀온 후 남긴 저술로, 청나라의 문물제도와 사회경제체제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 이름은 무엇일까요?

연암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 <양반전>, <호질>을 읽어 본 적이 있나요? 이 소설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 보세요.

.....

.....

.....

.....

.....

홍대용



조선시대 과학사상가 홍대용에 대해 적어 보세요.

.....

.....

.....

.....

.....

허생전

- 조선 사회경제 구조의 취약성 비판(물자의 유통이 없는 구조)
- 허구적 명분론에 휩싸여있던 북벌론 비판

허생은 마을의 큰 부자 번씨를 찾아가 만 량을 꾸어서 과일 장사를 한다. 요즘으로 치면 매점매석(買占賣惜) 곧 사재기를 한 것이다. 팔도의 과일을 몽땅 산 다음에도 많은 돈이 남아 허생은 나라의 경제를 장탄식한 다음에 제주도로 건너가 말총을 모두 산다. 같은 방식으로 말총 장사를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된 허생은 도둑 떼를 이끌고 섬으로 들어간다.

양반전

- 양반이라는 신분의 허위성 풍자

강원도 정선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관곡을 빌려 먹었는데 천 석이나 빚을 지게 되었다. 순찰 중인 관찰사가 천 석이 부족한 것에 크게 노하여 군수에게 그 양반을 하옥시키도록 명령하였다. 양반이 빚 갚을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수는 양반 신분의 매매 증서를 만들어 서명해 주기로 하고 고을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은다. 군수는 양반권 매매 증서에 양반으로서 행해야 할 형식적 절차 여러가지와 이웃 백성들에 대한 횡포를 나열한다. 부자 서민은 양반의 생활이 걸치레뿐이고 구속이 심하며 갖가지 월권 행위가 도둑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양반이 되기를 포기한다.

호질

- 양반의 도덕적 허위의식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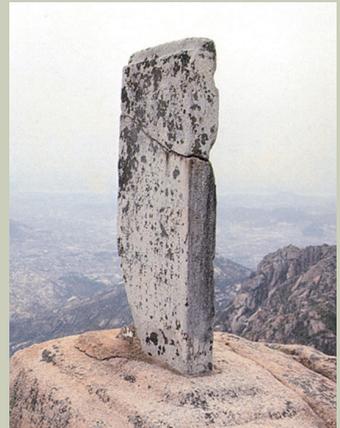
산중에 밤이 들자 큰 호랑이가 부하들을 소집하고 저녁거리를 의논하고 마을로 내려올 때 정지읍에 사는 도학 높은 북곽 선생이 이웃의 동리자라는 청상 과부 집에서 밀회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동리자와 아들 다섯이 고명한 선생이 그럴 리가 없고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 하여 몽둥이를 들고 들어갔다. 선생이 겨우 도망쳐 나와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선생이 목숨을 비니 호랑이는 선생의 위선적인 생활을 크게 꾸짖고 가 버렸다.

실학의 학파 - 실사구시파

실사구시(實事求是)란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 즉, 실학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실증적 고증학적 학문 방법을 일컬어 실사구시파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실학자로는 김정희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24세 때 연행사로 중국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수행했는데, 거기서 옹방강(翁方綱) 및 완원(阮元)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름 높은 고거학자(考據學者)들이었습니다. 고거학이란 고증학(考證學)이라고도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명제를 배격하고 학문의 방법으로써 금석(金石), 전고(典故)에 의한 실증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실사구시파의 형성은 바로 이러한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조선학(국학)'의 연구

실학자들은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문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학은 본래 관념적인 학문을 지양하고 인간의 실생활에 실용적인 학문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학문적 성숙과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둔 조선학은 우선 역사학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성호 이익은 삼한(三韓)정통론을 제기했는데, 성호의 역사학을 계승한 안정복은 조선의 역사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삼한, 통일신라 및 고려로 이어지는 체계로 정립하였습니다. 언어학에서도 한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체계적인 농서연구도 이루어졌습니다.



Think! 전시실에는 김정희의 실사구시적 태도를 상징하는 어떤 비의 발견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6세기 신라 진흥왕이 북한산 정상에 세운 이 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Think! 전시실에서 조선후기 조선의 역사, 지리, 언어 등에 대해 연구하고 저술한 실학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저술을 찾아 적어보세요.

안정복

유득공

유 희

이덕무

개화사상으로서의 가교

19세기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혜강 최한기와 환재 박규수가 있습니다. 최한기는 서양의 과학세계를 전통적인 ‘기(氣)’를 중심으로 이해하여 해석하는 ‘기학’을 개척하면서 세계의 수학, 의학, 지리, 과학의 이해와 교류를 주장했습니다.

박규수는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로서, 일찍부터 세계정세에 눈뿔던 인물입니다. 그는 서양 각국과의 개국통상과 국제외교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양반 자제들에게 세계의 흐름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즉 실학의 학풍을 개화사상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환재집을 남겼습니다.

실학의 계승

조선후기 실학은 개화사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실학자 최한기와 박규수의 사상은 1884년 개화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김옥균·박영효·홍영식 등이 일으킨 갑신정변(甲申政變)의 사상적 바탕이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은 일찍이 개국통상을 주장한 이용후생과[북학파] 실학자들의 사상이 계승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세치용파의 학통은 자국에 대한 주체적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후대에 계승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한 안정복의 사상은 제자인 황덕길 형제에게 이어졌으며, 다시 허전과 이남규에게 계승되었습니다. 항일운동으로 이름이 난 이남규의 사상은 일제강점기 변영만과 신채호 등에 이르러 ‘민족혼’을 되살려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천문과 지리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은 국토와 천문에 대한 과학적 탐구정신을 낳았습니다.

김정호는 남북을 120리 간격으로 하여 22층으로 구분하고 동서를 80리 간격으로 구분하여 동서로 접으면 휴대하기에 간편한 지도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역사지리의 금자탑이라 불리는 대동여지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휴대용 별시계 ‘아스트로라브’. 실학박물관 소장 아스트로라브는 실학자 유급이 제작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유물입니다.



아스트로라브

〈지구전후도〉는 1834년에 혜강 최한기가 제작한 지도로, 친구인 김정호가 판각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세계지도는 19세기 초반부터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인식을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구전후도(전)



지구전후도(후)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에 서양지리학을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한 마테오 리치와 명나라학자 이치조가 함께 만들어 목판으로 찍어 퍼낸 것입니다. 『곤여만국전도』는 그 당시의 서양지리학과 지도학의 축적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1708년 우리 왕실에서도 8폭 병풍으로 그렸습니다.



곤여만국전도